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음 5월 16일) 제231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미래 신산업 육성 예산 확보에 총력

전북도, 중기부 찾아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 지원 건의

전북도는 침체된 전북 경제를 회복하고 창업생태계 조성 등 미래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다.

17일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대전정부청사를 찾아 김하도 중기부 차관을 만나 도정 현안사업에 대해 사업선정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이원택 부지사는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지평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주력산업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체계적 소상공인 육성,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중기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먼저, 지역내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북 창업생태계가 조성되어 지역산업이 다각화되고 이어져 탄탄한 전북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위한 공모선정과

국비 121억원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일자리 부족과 굶직한 대기업 부채 등 지역 특성으로 인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으며 준비 없는 창업으로 인한 잦은 폐업 등 생계형 창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전북에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강조했다.

이을러, 전북의 자동차 생산기반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다수의 관련 기관과 실증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한 전북 자동차 산업의 체질 개선과 미래 자동차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전북 친환경·미래형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적극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에 제출된 부처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막바지까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 정치권 및 시·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속도'

전주시, 황방산·산정동 일대 대상 11월까지 용역 시행  
과거사 자료수집·매장추정지 증언 확보 등 절차 거쳐야

한국전쟁 당시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유해를 발굴해 안치하는 사업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약 1억3343만원을 투입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유해매장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황방산과 산정동(소리개재) 일대를 대상으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발굴된 유해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을 위한 감식 과정과 최종보고회를 거친 후 오는 11월경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전쟁당시 민간인 희생자들의 과거사 자료수집 △매장추정지 증언 확보 △토지사용허가 △유족과의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쳐 왔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매장된 민간인 희생자들께서는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다"며, "유해발굴을 통해 우리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가장 인간적인 도시의 조건' 김승수 전주시장은 1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에 초청돼 '가장 인간적인 도시의 조건'을 주제로 전주시 주거복지 정책과 사회주택 사례를 전국에 소개했다.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 실질과 가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은 중앙과 지방 정부, 지역주민과 활동가, 학계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4면)

## "농수산대 분할법 '옥동자 사지 반으로 쪼갬'는 발상"

김중희 의원, "원천 봉쇄 법적 장치 마련할 것  
더 많은 인재 육성 필요시 입학전형 보완" 주장

민주평화당 김중희 국회의원(전북 김제, 부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분교 설립은 옥동자의 사지를 반으로 쪼갬"이라는 발상"이라며 "한농대 분할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농대-전북혁신도시 고사시키는 한농대 분할 법안 즉각 철회'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 문경, 예천)이 발의한 '한농대 설치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했다. (관련기사 3면)

김 의원은 "경북 출신 일부 의원들이 '멀티캠퍼스'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분할을 주장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한농대를 경북지역에 설치하겠다는 음모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농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멀티캠퍼스화 용역, 농림부가 1억5천만원을 편성해 추진 중인 '청년농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 등은 한농대 분할의 논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교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한농대의 절반을 경북지역으로 이전 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되는데 주목하며 "한농대 분할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북혁신도시의 상징이자 200만 전북 도민의 자존심인 한농대를 분할 하려는 시도는 전북혁신도시를 축대발로 만들겠다는 발상이고 전북도민에 대한 전면적 도발 행위"라며 "최고의 농업인재를 양성하는 농수산대학을 분할하는 것은 대한민국 농생명 허브를 지향하는 전북혁신도시의 지속 발전 가능성과 싸움을 잘라



버리겠다는 모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농대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운영하며 땀비신 강화를 위해 3년 동안 전원 기숙사 생활을 의무화하고 있어 등하교의 부담이 전혀 없다"면서 "접근성과 지역별 균형있는 농수산 인력 양성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 중인 한농대 분할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나 충남 아산에 위치해 있는 경찰대학에 타 지역 인재들이 거리상의 이유를 들어 지원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영남지역 학생들의 입학에 대해 '한농대 분할' 음모를 원천봉쇄하고 분할의 분자도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법적 장치를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한국농수산대학의 정원과 학과를 늘리거나 입학전형을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분할 논리에 쐐기를 박았다.

김 의원은 "한농대는 전북 전주로 이전한 뒤 확실한 발전을 거듭하며 입학경쟁률 4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농대를 나누게 되면 경쟁력은 크게 약화돼 머잖아 몰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 자명하다"며 "전북 뿐 아니라 전국 혁신도시의 존립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한농대 설치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양심 있는 모든 국회의원과 연대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거나 부결시킴으로써 법안을 무력화 하겠다"면서 "전국의 농민단체 등과 연대해 '한농대 분할' 음모를 원천봉쇄하고 분할의 분자도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법적 장치를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전북뉴스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미엄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